

## 하나원 화천분소장, 최문순 화천군수 면담 통해 지역주민 건강지원 협력방안 논의

- 김영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(이하 ‘하나원 화천분소장’)은 5월 27일(수), 화천군청에서 최문순 군수를 만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(이하 ‘하나원 화천분소’)에서 추진 중인 「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」 운영계획과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.
  - 이날 면담에서는 하나원 화천분소에서 운영 중인 하나의원의 일반의원 개원과 지역주민 건강지원 방향, 의료자원의 지역사회 활용, 주민 건강 증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.
- 하나원 화천분소가 추진하는 「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」은 간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·혈당·빈혈 등 기초 건강검사와 만성질환 상담, 구강검진 및 구강관리 교육, 한방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.
  - 특히 「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」은 주민이 직접 하나원 화천분소를 방문하는 방식과 하나의원 의료진이 마을회관·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방식으로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,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.
- 또한, 오는 6월 9일(화), 「간동면 이장단 회의」를 하나원 화천분소에서 개최하고, 간동면 이장단 및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「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」 운영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.
  - 「간동면 이장단 회의」 행사에는 간동면 이장단, 간동면장, 면사무소 직원, 과출소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, 하나원 화천분소는 업무 현황 브리핑과 함께 「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」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. 이어 하나의원, 하나마음쉼터, 교육관, 생활관, 체육관 등 주요 시설 견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.

- 하나원 화천분소는 6월 9일(화) 이장단 회의를 계기로 마을별 건강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및 우선 지원 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고, 6월 중 1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.
- 김영일 하나원 화천분소장은 “「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」은 하나원 화천분소의 의료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첫 시도”라며 “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관련 사진(별도 첨부)

담당 부서	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	책임자	과 장	김환선 (033-440-3650)
		담당자	사무관	심영환 (033-440-3670)

